

대학입학전형유형별 신입생의 입학 후 대학생활 비교 연구 -K대학 사례분석-

양은목*, 서창호**, 홍도원**, 김종훈**
공주대 수학과, 공주대 컴퓨터공학과*

A Comparative Study of After Entering College Freshman's Life Based on Their Different University Admission Types.

Eun-Mok Yang, Chang-Ho Seo, Do-Won Hong, Jong-Hun Kim,
Dept. of Mathematics, Kongju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입학과 함께 전문지식과 덕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리 지원하는 프로그램 (K-Leader마일리지)을 통해 대학생의 핵심역량 데이터를 입학전형 유형별로 나누어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리더십과 인간관계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은 상대적으로 활동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과 인간관계는 수능위주(수능) > 학생부위주(교과), 학생부위주(종합) 학생부위주(교과) 수능위주(수능) > 수능위주(수능+학생부), 글로벌 영역은 수능위주(수능+학생부) 수능위주(수능) > 학생부위주(종합), 수능위주(수능+학생부) 수능위주(수능) > 학생부위주(교과), 진로 및 취업활동은 학생부위주(종합) 학생부위주(교과) > 수능위주(수능+학생부), 마일리지점수 합계는 수능위주(수능) > 학생부위주(교과) 수능위주(수능)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리더십과 인간관계의 항목인 공동체 참여의 활동만으로 보면 기존 연구와 같이 학생부위주(종합)전형의 학생이 학교생활을 잘한다는 연구 결과와 같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의 K-Leader 마일리지 분석결과는 수능위주(수능)전형이 대학생활을 잘 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주제어 : 대학생활 비교, 입학사정관계, 입학사정관, 학교만족도, 신입생

Abstract The study conducted Comparative Analysis on the difference of College Scholastic Ability Data divided by type of admission process through the mileage program. Analysis result in following sequence. Leadership and relationships : CSAT(CSAT) > TOSR(subject), CSAT(CSAT+TOSR) is lower than each types ; mainly TOSR(total), TOSR(subject), CSAT(CSAT). Global : CSAT(CSAT+TOSR) & CSAT(CSAT) is higher than mainly TOSR(total) & TOSR(subject). Career and job search : TOSR(total) & TOSR(subject) is higher than mainly CSAT(CSAT+TOSR). Sum of mileage score : CSAT(CSAT) is higher than TOSR(subject) & CSAT(CSAT). Given this as a result, If you look simply at the activities of joint participation of leadership and relationships, student of mainly TOSR(total) admission do well college life with existing research. But with analysis results of K-Leader mileage this research shows that students of mainly CSAT(CSAT) admission do well college life. * CSAT(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TOSR(a transcript of school records)

Key Words : Comparison of college life,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The admission officer, Satisfaction degree of school, Freshman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기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음. [NRF-2013-R1A1A2010382]

Received 29 February 2016, Revised 31 March 2016
Accepted 20 April 2016, Published 28 April 2016
Corresponding Author: Chang-Ho Seo
(Department of Mathematics Kongju National University)
Email: chseo@kongj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제도는 2007년 입학사정관 전형 제도가 생긴 이래 오늘날까지 일반전형, 입학사정관 전형, 특별전형 등으로 나뉘어져 시행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여러 조건과 역량에 맞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 진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배경과 다른 준비도를 갖춘 학생들이 다양한 전형을 통해 입학한 만큼, 입학 후 대학생으로서의 생활 적응에 있어서도 학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술과 대인관계 역량을 필요로 하는 등의 다양한 양상을 띠는 가능성이 많아졌다.

대학생활은 다양성과 자율성이 인정되는 만큼 학생 자신에게 성적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자기관리를 요구한다. 더불어 단순히 학점을 잘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잘 키워서 졸업 후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는 데까지 이르는 보다 총체적이고 장기적 목표 계획과 추진 및 달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입학 전형별 학생들의 입학 후 적응의 양상을 탐구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대학생활의 양상과 이들이 체험하는 고민, 그리고 대학생활에 있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학생들의 입학 후 추수지도라는 대학 당국의 역할과 과제 수행에 있어 매우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입학사정관제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지 10년여에 접어든 시점에서, 실제로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학생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성장해 나가는지를 탐구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입학사정관제의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대학교 수준에서 학생 선발의 문제는 국가, 사회, 대학, 개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어떤 특성을 지닌 학생을 유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또한 학업성취도는 대학이 입학적격자를 선발하여 입학한 학생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데 중요한 적도 중의 하나이다. 대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진학한 이후 실로 많은 변화와 요구에 직면하게 되며, 이에 따라 대학 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요인이나 적응과정을 밝히는 연구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에 따라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양상이 달라지는가를 입학사정관제로 입

학하고 현재 재학중인 대학생 대상으로 단순 설문조사로 분석하다보니 연구결과가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대학생활을 잘한다’라는 포괄적인 연구결과가 대부분이다[1].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의 특성이나 선발방법이 다양한 많은 대학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기존 설문을 통한 연구결과와 현재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의 분석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에 따라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대학생활적응의 중요성은 다양해진 대학입학 유형으로 인하여 이전 총점제를 통해 대학의 신입생을 선발했던 때보다 더욱 다양해졌다. 대학들은 다양한 입학유형에 따라 입학한 학생들에 대하여 추수(追隨)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어려움과 기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학생활적응의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2]. 대학생활적응은 기존의 학업성취도와 달리 학업적 적응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및 사회의 참여 수준 등의 사회적 적응과 현재 개인의 심리 및 신체 상태를 알아 볼 수 있는 개인감정적 적응, 또한 현재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만족도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일반적 적응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가 학점이라는 결과를 통해 분석하였다면, 대학생활적응 척도의 학업적 적응이란, 학업 동기, 학업에 대한 몰두, 학업을 수행하는 상태, 학업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학생활적응 척도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로의 성장 예측이 가능하고, 단순히 학점이라는 학업적인 결과가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 개인 심리적인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현재 대학 생활에 대한 상태를 보아야 한다.

대학입학유형에 따라 입학하는 학생들은 대학생활에서 얻어지는 학업성취도가 대학입학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학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곧 학업에 적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성취도와 대학생활적응에 있어 대학입학유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양자의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은 학생들의 학업뿐만 아니라, 진로정체감, 진로 결정수준, 진로 준비 행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개인수준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

나라, 대학적응 실패는 사회적 비용 증가 및 대학 경영의 비능률과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학생 개개인의 학교생활 부적응은 곧바로 교육 효과 감소로 이어지고 이러한 학생이 많을수록 그 대학은 경쟁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대학교는 이제 우수 학생의 유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재학생의 학교생활 유지와 적응과 관련하여 대학의 물리, 환경적 시스템 구축 뿐만 아니라 진로 상담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책을 개발하여 행동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입학과 함께 전문지식과 덕성을 갖추도록 관리 지원하는 프로그램(K-Leader마일리지)을 통해 자아발견, 리더십과 인간관계, 글로벌, 역량강화, 진로 및 취업활동의 5개 영역으로 측정된 대학생의 핵심역량 데이터를 입학 전형 유형별로 나누어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대학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K-Leader마일리지)과 대학입학유형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대학에서 입학유형에 따른 교육 행정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함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2. 이론적 배경

2.1 관련연구

대학 생활의 만족도와 학업성취도와와의 관련성, 학교 적응도와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사례는 다양하며,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관련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알려준다.

대입 전형방법별 전형요소들이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평균평점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여, 대입전형방법과 성적분포가 대학입학 후 학업성취도에 영향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3]. 2011년, 2012년 대학 신입생 중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과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분석하였다[4]. 분석 결과 일반 전형의 학업성취도가 입학사정관전형의 학업성취도보다 높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 입학하여 여섯 학기 연속 이수한 학생들의 GPA를 분석하였다[5]. 대상 학생들을 성별과 입학 시 모집단위별로 나누어서 입학 후 학업성취도를 분석하여 일

반전형 입학자들이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자들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았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공과대학 학생들의 교육 요구수준이 학교생활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려고, 전공능력, 기초교양, 언어능력, 조직 및 커뮤니케이션 등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교육요구수준 설문 및 학교생활만족도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분석 결과, 공과대학 학생들의 교육요구 수준은 학교 생활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며, 학교생활만족도와 학업성취도는 유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학문적이고 사회적인 요구 및 직업준비 요구를 대학에서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다면, 학생의 요구와 대학 지원이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학생의 학교만족도와 학업성취도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6].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생활을 설문 분석하여, 학교적응도, 학교만족도, 진로성숙도, 학습태도에 있어서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은 모든 변인에서 타 전형학생들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주었고, 학교적응도와 학교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습태도에 있어서 행동적 측면의 수업태도는 부족함을 나타내었다고 기술하였다[7].

학교참여가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학교 참여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대학 2학년 재학생 총 1,113명에 대한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행동적 참여와 인지적 참여 수준이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정서적 참여는 진로 결정을 촉진하고 편입 및 전과와 같은 학교 이탈을 방지하면서 안정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8].

공개된 연구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대학생들의 대학적응 및 성취도에 관한 개별 대학의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다. 수시와 정시 모집 학생을 비교한 연구결과를 보면, 정시모집 학생들에 비하여 수시모집 학생들의 대학학업성취도의 평점평균이 낮았다[9]. 그러나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수시·정시합격자의 수능·학생부 성적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활용방안 모색 연구에서는 수시모집집단이 정시모집집단에 비하여 점수가 높게 나타

났다[1]. 대학입학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교육성과 차이 분석에서도 수시모집 입학생들이 정시모집 입학생들에 비하여 학업성취도가 높았고, 다른 대학으로의 편입의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10].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분석결과, 입학사정관제 전형 입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목표에 따라 대학과 전공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정시 입학생들에 비하여 대학에 대한 적응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전공과목을 이수하거나 학생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의 대학활동 참여가 내재적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적응에 대한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후 일반전형 입학생들의 인식을 동시에 조사함으로써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11]. 또한 대학생 적응이나 대학학점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학사정관제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2.2 K-Leader 마일리지

K-Leader 마일리지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덕성을 두루 갖춘 21세기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의 커리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K-Leader 마일리지의 구성은 5개의 영역, 29개의 항목, 48개 세부항목, 93개의 활동영역(인정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K-Leader 마일리지는 한 학기에 최대 2000 마일리지를 취득할 수 있다.

영역은 자아발견(300마일리지), 리더십과 인간관계(300마일리지), 글로벌(400마일리지), 역량강화(400마일리지), 진로 및 취업활동(600마일리지)로 구성되어 있고, 진로 및 취업활동이 마일리지의 비중이 높고, 리더십과 인간관계의 마일리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자아발견영역의 목적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여 자신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리더십과 인간관계영역은 학생들의 졸업 후 사회 진출을 대비해 대인관계능력을 키우고, 조직 생활을 원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영역은 글로벌 사회에 대비하여 외국어 학습활동을 증진시키고,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비즈니스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재학 중 1인 1개 이상 외국어를 구사하도록 하는 것이고, 역량강화영역은 학생들의 전공 및 희망 업·직

종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일리지 프로그램에서 비중이 높은 진로 및 취업활동영역은 학생들이 취업활동을 위해 관심을 가지게 하고 사회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2.1 자아발견 항목 및 활동영역

자아발견영역은 활동영역별로 10~50마일리지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마일리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항목은 심리검사, 적성검사, 취업본부 프로그램 및 창업상담, 건강관리로 이루어져 있다. 항목별 활동영역으로는 심리검사의 활동영역은 성격유형검사, 직업흥미검사, 인성검사 직업적성검사 등이 있다. 적성검사의 활동영역은 대기업적무적성검사(SSAT, RPST, DCAT, SCCT, CAT 등), 공직적격성검사(PSAT), 창업진단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취업지원본부 프로그램 및 창업상담항목의 활용영역은 개별상담, 집단상담(집단프로그램), 창업기초상담, 창업멘토(심화)상담 등이고, 건강관리 항목은 보건진료소 학생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마일리지를 취득할 수 있다.

2.2.2 리더십과 인간관계 항목 및 활동영역

리더십과 인간관계는 활동영역별로 1~30마일리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300마일리지를 취득할 수 있고, 항목은 공동체참여, 집단훈련활동, 독서활동, 봉사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체 참여의 활동영역은 학교주관 행사참여, 단과대학, 학부(과), 부속기관 프로그램참여, 각종 공동체 참여이고, 집단훈련활동의 활동영역은 병영 및 극기 훈련, 국토/조국 순례이다. 또한 독서활동은 독서 감상문을 제출하면 되고, 봉사활동의 활동영역은 해외봉사,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 의료기관, 시민사회단체, 농어촌도시봉사, 헌혈, 교내인정 자원봉사활동, 학생홍보단, 학생 튜터링의 튜터 등의 활동이다. 리더십개발 항목의 활동영역은 교내 간부 활동 및 리더십프로그램 참가로서 마일리지를 취득할 수 있다.

2.2.3 글로벌 항목 및 활동영역

글로벌영역은 활동영역별로 10~70마일리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400마일리지를 취득할 수 있고, 항목으로는 외국어, 제2외국어, 한자능력, 해외체험학습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어항목의 활동영역은 토익(기타영어시험대체가능) 500점 이상, SEPT(기타말하기 전문시험대체가능) Level 4이상이고, 제2외국어 항목의 활동영역은 FLEX 시험 합격자(듣기/읽기, 쓰기, 말하기 중 1), SNULT Level2 이상이면 마일리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한자능력항목의 활동영역은 한자시험(국가공인) 3급이상, 해외체험학습 활동영역은 해외교환학습, 현장학습, 인턴십, 어학연수 1개월 미만에서 6개월 이상으로 세분화 하고, 해외산업시찰 1주 이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다.

2.2.4 역량강화 항목 및 활동영역

역량강화영역은 활동영역별로 10~70마일리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최대 400마일리지를 취득할 수 있고, 항목은 전공 및 컴퓨터 자격증, 국어능력시험, 공모전 및 발명특허, 학술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공 및 컴퓨터 자격증의 활동영역은 전공 자격증과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면 마일리지를 취득할 수 있고, 국어시험능력의 활동영역은 국어능력시험 1급에서 3급, 공모전 및 발명특허의 활동영역은 교내, 도내, 전국공모전 입상 및 발명특허를 취득하면 마일리지를 취득할 수 있다.

2.2.5 진로 및 취업활동 항목 및 활동영역

진로 및 취업활동은 활동영역별로 10~100마일리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최대 600마일리지를 취득할 수 있고, 항목은 채용설명회 및 취·창업 박람회, 취업 과목이수, 취·창업 특강, 기업체험활동, 제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채용설명회 및 취·창업 박람회의 활동영역은 채용설명회 및 취·창업박람회 참가로 마일리지를 취득할 수 있고, 취업 과목이수의 활동영역은 취업 및 창업 교과목 이수, 진로 및 취업캠프 참여, 창업캠프 참여, 노동부프로그램 이수, 직업훈련교육 이수이고, 취·창업 특강의 활동영역은 취업특강 및 창업특강 이수, 기업체험활동의 활동영역은 산업체 현장실습 및 인턴십, 청년직장체험, 중소기업체험, 교내 근로장학생, 기업탐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안제도의 활동영역은 취업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마일리지를 취득할 수 있다.

3. 연구대상과 내용

3.1 연구자료와 대상

분석자료는 K-Leader마일리지 제도이다. 입학과 함께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덕성을 두루 갖춘 21세기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5가지 역량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커리어를 관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0년 2학기부터 시행되고 있고, 마일리지가 높은 학생들 대상으로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Table 1> arget of Analysis

Year of Admission	Personnel of Admission	Dropouts	Target of Analysis
2011	2,834	221	2,613
2012	2,915	187	2,728
2013	2,909	123	2,786
2014	2,870	110	2,760
Total	11,528	641	10,887

연구대상은 2011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정원내 입학생 중 중도탈락자를 제외하고, 입학 인원이 많은 대표전형 네 종류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1학년도부터 2014학년도의 분석대상전형 입학자 11,528명 중 중도탈락자 641명을 제외하고 10,887명의 K-Leader마일리지를 분석하였다.

수시에 학생부위주(종합)전형과 학생부위주(교과전형)전형, 정시는 수능위주(수능+학생부), 수능위주(수능)전형의 4가지 전형을 비교 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전형을 자세히 설명하면, 학생부위주(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제로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학생부의 교과/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로 서류평가(50%)와 면접(50%)을 통해 선발하였고, 학생부위주(교과)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만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부성적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학생을 선발한다. 수능위주(수능+학생부)전형은 수능성적과 학생부성적을 일정비율로 사용하고, 수능위주(수능)은 수능점수만 사용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3.2 분석내용 및 방법

연구문제 : 대학 입학 후 진로 및 대학생활을 위하여 K대학에서 제공하는 K-Leader 마일리지 프로그램 이수 에 전형유형별로 차이가 존재하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Leader 마일리지는 5개의 서로 다른 역량을 표현하기 때문에 5개의 영역별로 나누어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4. K-Leader 마일리지 분석

4.1 자아발견

자아발견 영역은 심리검사, 적성검사, 취업지원본부 프로그램, 창업상담, 건강관리 등을 수행하면 마일리지를 점수를 취득할 수 있다.

〈Table 2〉 The Average Score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Admission Types of Self-Discovery

Admission Type	N	M	SD
TOSR(total)	1,829	41.34	45.80
TOSR(subject)	3,083	40.72	43.43
CSAT(CSAT+TOSR)	3,585	39.90	49.53
CSAT(CSAT)	2,390	42.04	55.99
Total	10,887	40.85	48.81

CSAT(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TOSR(Transcript of School Records)

자아발견 마일리지 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수능위주(수능), 학생부위주(종합), 학생부위주(교과), 수능위주(수능+학생부)순으로 나타났다.

자아발견 항목의 활동횟수는 1회도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적성검사(10,821명), 취업지원본부 프로그램(9,566명), 건강관리(2,960명), 심리검사(1,840명)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성검사는 고등학교 재학 중 많이 실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취업지원본부 프로그램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대다수이지만, 많이 참여한 학생은 31회 참여하였다.

〈Table 3〉 Test of Homogeneity of Variance of Self-Discovery

Levene Statistic	df1	df2	Sig.
9.916	3	10883	.000

〈Table 3〉에서 유의확률이 .000으로 .05를 넘지 않으므로 분산의 동질성이 없다

〈Table 4〉 One-way ANOVA of Self-Discovery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7087.94	3	2362.65	.992	.396
Within Groups	25929020.74	10,883	2382.53		
Total	25936108.68	10,886			

전형에 따른 자아발견 점수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결과 네 집단의 평균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p>.05$)

4.2 리더십과 인간관계

리더십과 인간관계 영역은 공동체 참여, 집단훈련활동, 독서활동, 봉사활동, 리더십개발 등의 활동으로 마일리지를 취득할 수 있다.

〈Table 5〉 The Average Score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admission types of Leadership and Human Relationships

Admission Type	N	M	SD
TOSR(total)	1,829	99.12	104.97
TOSR(subject)	3,083	96.77	101.28
CSAT(CSAT+TOSR)	3,585	89.61	99.04
CSAT(CSAT)	2,390	104.66	104.24
Total	10,887	96.54	101.98

리더십과 인간관계 영역의 마일리지 평균은 수능위주(수능) 104.66, 학생부위주(종합) 99.12, 학생부위주(교과) 96.77, 수능위주(수능+학생부) 89.61 순으로 나타났다.

리더십과 인간관계 항목 활동 중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이 많은 순으로 집단훈련활동(10,837명), 독서활동(10,669명) 리더십개발(9,752명), 봉사활동(9,023명), 공동체참여(732명)로 나타났다.

〈Table 6〉 Test of Homogeneity of Variance of Leadership and Human Relationships

Levene Statistic	df1	df2	Sig.
3.436	3	10883	.016

〈Table 6〉에서 유의확률이 .016으로 .05를 넘지 않으므로 분산의 동질성이 없다는 의미이며, 집단 간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Dunnett의 T3으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7> One-way ANOVA of Leadership and Human Relationships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342079.15	3	114026.38	10.995	.000
Within Groups	112867005.26	10,883	10370.95		
Total	113209084.41	10,886			

전형에 따른 리더십과 인간관계 영역 점수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결과 네 집단의 평균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F(3, 10,883)=10.995, p<.001]. 구체적으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8> Post-Hoc Test(Multiple Comparison) -Dunnett T3

Admission Type (I)	Admission Type (J)	Mean Difference (I-J)	SE	Sig.
①	②	2.350	3.058	.970
	③	9.505	2.960	.008
	④	-5.546	3.251	.425
②	③	7.155	2.462	.022
	④	-7.896	2.806	.029
③	④	-15.051	2.699	.000

①: TOSR(total) ②: TOSR(subject)
 ③: CSAT(CSAT+TOSR) ④: CSAT(CSAT)

수능위주(수능+학생부)전형보다 학생부위주(종합), 학생부위주(교과), 수능위주(수능)전형이 학생부위주(교과)보다 수능위주(수능)이 리더십과 인간관계 마일리지 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학생부위주(종합)전형과 학생부위주(교과)전형 및 수능위주(수능)전형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4.3 글로벌

글로벌 영역은 토익, SEPT, 제2외국어, 한자능력시험, 해외체험학습 등을 실시하면 마일리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영역이다.

글로벌 영역 마일리지 평균은 수능위주(수능)전형 5.44, 수능위주(수능+학생부) 4.60, 학생부위주(교과) 2.77, 학생부위주(종합) 2.42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9> The Average Score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admission types of Global

Admission Type	N	M	SD
TOSR(total)	1,829	2.42	11.85
TOSR(subject)	3,083	2.77	12.52
CSAT(CSAT+TOSR)	3,585	4.60	19.54
CSAT(CSAT)	2,390	5.44	21.40
Total	10,887	3.90	17.19

글로벌 항목 활동 중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이 많은 순으로 제2외국어(10,881명), 한자능력시험(10,862명), 외국어영역(10,612명), 해외체험학습(10,236명)으로 나타났다.

<Table 10> Test of Homogeneity of Variance of Global

Levene Statistic	df1	df2	Sig.
64.733	3	10883	.000

<Table 10>에서 유의확률이 .000으로 .05를 넘지 않으므로 분산의 동질성이 없다는 의미이며, 집단 간 분산 분석을 실시하고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Dunnett의 T3으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전형에 따른 글로벌 영역 점수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1> One-way ANOVA of Global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15356.54	3	5118.85	17.396	.000
Within Groups	3202289.12	10,883	294.25		
Total	3217645.66	10,886			

분석결과, 네 집단의 평균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F(3, 10,883)=17.396, p<.001]. 구체적으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2> Post-Hoc Test(Multiple Comparison) -Dunnnett T3

Admission Type (I)	Admission Type (J)	Mean Difference (I-J)	SE	Sig.
①	②	-.342	.357	.916
	③	-2.174	.428	.000
	④	-3.015	.518	.000
②	③	-1.832	.397	.000
	④	-2.673	.492	.000
③	④	-.840	.546	.548

①: TOSR(total) ②: TOSR(subject)
 ③: CSAT(CSAT+TOSR) ④: CSAT(CSAT)

학생부위주(종합)전형보다 수능위주(수능+학생부), 수능위주(수능)전형, 학생부위주(교과)전형보다 수능위주(수능+학생부), 수능위주(수능)전형이 글로벌 마일리지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학생부위주(종합)과 학생부위주(교과)의 차이, 수능위주(수능+학생부)와 수능위주(수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4 역량강화

역량강화 영역은 전공 및 컴퓨터 자격증 취득, 국어능력시험 자격 취득, 공모전 및 발명특허 입상, 학술활동 등을 수행하면 마일리지를 취득할 수 있다.

<Table 13> The Average Score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admission types of The Capacity Building

Admission Type	N	M	SD
TOSR(total)	1,829	6.98	29.64
TOSR(subject)	3,083	6.71	28.34
CSAT(CSAT+TOSR)	3,585	6.24	26.30
CSAT(CSAT)	2,390	6.15	25.76
Total	10,887	6.48	27.35

역량강화 영역의 마일리지 평균은 학생부위주(종합) 6.98, 학생부위주(교과) 6.71, 수능위주(수능+학생부) 6.24, 수능위주(수능) 6.15 순으로 나타났다.

역량강화 항목 활동 중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이 많은 순으로 국어능력시험(10,883명), 공모전 및 프로젝트(10,677명), 전공 및 컴퓨터자격증(10,563명), 학술활동(9,998명)으로 나타났다.

<Table 14> Test of Homogeneity of Variance of The Capacity Building

Levene Statistic	df1	df2	Sig.
1.463	3	10883	.223

<Table 14>에서 유의확률이 .223으로 .05를 넘어선다. 즉 분산의 동질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Table 15> One-way ANOVA of The Capacity Building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1090.79	3	363.60	.486	.692
Within Groups	8144850.08	10,883	748.40		
Total	8145940.87	10,886			

전형에 따른 역량강화 점수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결과 네 집단의 평균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p>.05)

4.5 진로 및 취업활동

진로 및 취업활동 영역은 채용설명회 및 취·창업 박람회 참여, 취업과목 이수, 취·창업 특강 이수, 기업체험활동 수수료 등의 활동을 수행하면 마일리지를 취득할 수 있다.

<Table 16> The average score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admission types of Career and Job Activity

Admission Type	N	M	SD
TOSR(total)	1,829	44.40	64.99
TOSR(subject)	3,083	44.97	65.59
CSAT(CSAT+TOSR)	3,585	50.04	73.21
CSAT(CSAT)	2,390	49.21	72.30
Total	10,887	47.48	69.61

진로 및 취업활동 영역 마일리지 평균은 수능위주(수능) 50.04, 수능위주(수능+학생부) 49.21, 학생부위주(교과) 44.97, 학생부위주(종합) 44.40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 및 취업활동 항목 활동 중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이 많은 순으로 제안제도(10,887명), 취업박람회(10,724명), 채용설명회(9,896명), 기업체험활동(9,410명), 취업과목이수(8,717명), 취업특강(5,792명)으로 나타났다.

<Table 17> Test of Homogeneity of Variance of Career and Job Activity

Levene Statistic	df1	df2	Sig.
4.869	3	10883	.002

<Table 17>에서 유의확률이 .002로 .05를 넘지 않으므로 분산의 동질성이 없다는 의미이며, 집단 간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Dunnett의 T3으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8> One-way ANOVA of Career and Job Activity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67447.54	3	22482.51	4.645	.003
Within Groups	52678740.35	10,883	4840.46		
Total	52746187.89	10,886			

전형에 따른 진로 및 취업활동 점수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결과 네 집단의 평균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F(3, 10,883)=4.645, p<.005]. 구체적으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9> Post-Hoc Test(Multiple Comparison)-Dunnett T3

Admission Type (I)	Admission Type (J)	Mean Difference (I-J)	SE	Sig.
①	②	-.571	1.925	1.000
	③	-5.643	1.951	.023
	④	-4.808	2.120	.132
②	③	-5.072	1.700	.017
	④	-4.237	1.893	.142
③	④	.835	1.919	.999

①: TOSR(total) ②: TOSR(subject)
 ③: CSAT(CSAT+TOSR) ④: CSAT(CSAT)

수능위주(수능+학생부)전형이 학생부위주(종합), 학생부위주(교과)보다 진로 및 취업활동 마일리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다른 전형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6 K-Leader 마일리지 합계

K-Leader 마일리지 합계는 5개영역의 마일리지 점수를 합한 결과이다.

K-Leader 마일리지 합계 평균은 수능위주(수능) 207.50, 학생부위주(종합) 194.27, 학생부위주(교과) 191.94, 수능위주(수능+학생부) 190.40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0> The Average Score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admission types of K-Leader Mileage

Admission Type	N	M	SD
TOSR(total)	1,829	194.27	188.16
TOSR(subject)	3,083	191.94	182.17
CSAT(CSAT+TOSR)	3,585	190.40	199.43
CSAT(CSAT)	2,390	207.50	210.46
Total	10,887	195.24	195.44

<Table 21> Test of Homogeneity of Variance of K-Leader Mileage

Levene Statistic	df1	df2	Sig.
4.449	3	10883	.004

<Table 21>에서 유의확률이 .004로 .05를 넘지 않으므로 분산의 동질성이 없다는 의미이며, 집단 간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Dunnett의 T3으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전형에 따른 K-Leader 마일리지 점수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22> One-way ANOVA of K-Leader Mileag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478189.57	3	159396.52	4.177	.006
Within Groups	415350726.36	10,883	38165.09		
Total	415828915.93	10,886			

분석결과, 네 집단의 평균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F(3, 10,883)=4.645, p<.05]. 구체적으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능위주(수능)전형이 학생부위주(교과), 수능위주(수능+학생부)전형보다 K-Leader 마일리지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다른 전형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3> Post-Hoc Test(Multiple Comparison) -Dunnett T3

Admission Type (I)	Admission Type (J)	Mean Difference (I-J)	SE	Sig.
①	②	2.329	5.488	.999
	③	3.868	5.518	.981
	④	-13.226	6.156	.176
②	③	1.538	4.675	1.000
	④	-15.556	5.413	.024
③	④	-17.094	5.443	.010

①: TOSR(total) ②: TOSR(subject)
 ③: CSAT(CSAT+TOSR) ④: CSAT(CSAT)

5. 분석결과

5개영역으로 구성된 K-Leader 마일리지 점수를 전형 유형간 비교 분석하였다.

자아발견 영역은 적성검사 및 취업지원본부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많이 부족하였고, 마일리지 점수 또한 전형 유형간 통계적으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리더십과 인간관계영역은 공동체참여 항목의 참여 인원이 많았고 집단훈련활동, 독서활동, 리더십개발, 봉사활동을 참여한 인원은 적은편이다. 공동체 참여는 학교 주관행사 참여, 단과대학, 학부(과) 행사 참여 등 각종 공동체 행사 참여로 마일리지를 취득할 수 있는 항목이다. 수능위주(수능) > 학생부위주(교과), 수능위주(수능) 학생부위주(교과) 학생부위주(종합) > 수능위주(수능+학생부)의 결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영역은 제2외국어, 한자능력시험, 외국어, 해외 체험학습 등이 활동인원이 많이 부족하였고 수능위주(수능+학생부) 수능위주(수능) > 학생부위주(종합), 수능위주(수능+학생부) 수능위주(수능) > 학생부위주(교과)의 결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역량강화 영역의 모든 항목의 참여 인원이 많이 부족하였고, 전형유형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진로 및 취업활동 영역은 제안제도, 취업박람회, 채용 설명회, 기업체험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참여

하였고 학생부위주(종합) 학생부위주(교과) > 수능위주(수능+학생부)의 결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5개 영역의 모두 합산한 결과인 K-Leader 마일리지는 모든 영역에서 활동인원이 부족하지만, 자아발견 영역과 역량강화 영역은 활동인원이 많이 부족하였고 수능위주(수능) > 학생부위주(교과), 수능위주(수능+학생부)의 결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6. 결론

기존 연구는 대학입학 후 전형유형별로 대학생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설문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본문에서는 현재 많은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전형유형별 대학생활 비교분석 하였다.

마일리지 제도는 자아발견 영역, 리더십과 인간관계 영역, 글로벌 영역, 역량강화 영역, 진로 및 취업활동 영역 등으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대학에서의 신입생의 대학생활 지도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아발견 영역에서 건강검진은 기숙사에 입실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다. 반면에 심리검사의 인성검사, 적성검사의 대기업직무적성검사, 공직적격성검사 등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심리검사나 적성검사도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리더십과 인간관계 영역은 많은 활동이 학부(과) 행사 참여로 마일리지를 취득하고 있으나,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에 독서활동이나 봉사활동이 많이 기재 되어 있듯이 독서활동이나 봉사활동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이 활동을 마일리지 시스템에 보다 쉽게 입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글로벌 영역은 토익성적우수 장학금 등 대학에서 학생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토익 대체 시험으로도 마일리지 점수를 취득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모의토익을 응시하고 있으나 마일리지 주관 부서와 모의토익 주관부서가 서로 달라 자동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

관부서 간 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

역량강화 영역은 자격증 취득으로 마일리지 점수를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역량강화 영역의 마일리지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컴퓨터 자격증처럼 많은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지만 자격증의 마일리지 반영은 미비한 형편이다. 역량강화 활성화 동기부여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마일리지 반영이 필요하다.

취업 및 진로활동은 자연계열 중심으로 이루어진 듯하다. 인문계열의 많은 학생은 취업 활동 보다 우선 공무원 학원등록, 토익학원 등록 등 진로활동을 더 많이 한다. 진로활동 및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 역시 적극적으로 마일리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공동체 참여 인원은 많고 다른 항목들의 인원은 참여 인원이 적다. 이것은 학생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학생의 마일리지 활동을 보다 쉽게 마일리지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시스템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in part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3R1A1A2010382).

REFERENCES

[1] Y. J. Lee, Y. K. Im, K. S. Seo, "Basic Research for the Improvement of Entrance Selection System in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19, pp. 73-96, 2005.

[2] W. S. Lee, "A study on follow-up management programs in the college admissions officer system",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Vol. 43, pp. 113-133, 2012.

[3] J. S. Cho, "The influence analysis of admission variables on academic achievem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21, pp. 729-736, 2010.

[4] H. S. Choi, C. A. Park, "A study on academic achievements

of college students admitted by admissions officer selection: K university case",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24, pp. 1149-1157, 2013.

- [5] H. S. Choi, C. A. Park, "A study on academic achievement by gender and selection method based on latent growth model: K university case",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25 No. 2, pp. 411-422, 2014.
- [6] G. H. Lee, S. U. Lim, "The effects of educational needs of engineering student on academic achievement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5, pp. 33-42, 2011.
- [7] K. A. Jun, "School life of the freshmen selected by admissions officers screening",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pp. 508-517, 2012.
- [8] S. Kim, J. E. Kim, "Analysis research for the effect of school engagement on learning outcomes and related factors in higher educa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14, pp. 73-96, 2013.
- [9] K. H. Lee, "The study on admissions officer system through analysis among high school grade point averages, CSAT grades, and university academic achievements: Focusing on the case stud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0, No. 3, pp. 313-342, 2010.
- [10] J. H. Kim, B. S. Rhe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Student Outcomes by College Admission Types",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42, No. 2, pp. 209-230, 2010.
- [11] K. R. Roh, S. J. Yoon, "The study on the process of the adaptation to the university Life of freshmen admitted by the admissions officer -Focused on the freshmen who experienced at a women's university-",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33, No. 1, pp. 91-118, 2012.
- [12] H. S. Park, "Relationships among students'3rd year high school characteristics, college english mediated subject courses, career decision type, and employment statu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pp. 442-452, 2014.

- [13] H. Yang, J. S. Choi, J. T. Han, J. Jeong, "Influence of tuition and scholarship on the stop-out rate: An empirical analysis using panel regression model",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26, pp. 631-638, 2015.
- [14] S. J. Yune, C. Y. Yoon, "The Development of College Adjustment Program for Freshmen via Admission Officer System", The Korean Society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 23, No. 1, pp. 23-34, 2011.
- [15] K. A. Jun, "School Life of the Freshmen Selected by Admissions Officers Screening",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2, No. 6, pp. 508-517, 2012.
- [16] Y. H. Hwang, "An Exploratory Study on Developing Programs to Meet the Needs of Pre-service Students Admitted through Admission Officer System",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Teacher Education, Vol. 30, No. 2, pp. 359-382, 2013.
- [17] B. N. Kim, E. G. Kim, "The Difference of Student Adaptation Level to University Life Depending upon Admission Method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Inha University, Vol. 21, No. 3, pp. 5-25, 2015.
- [18] J. Y. kim, S. Y. Park, H. S. Shin, B. C. Min, "Evaluating Admission Officer System Based on College Students' Outcome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14, No. 1, pp. 29-50, 2013.
- [19] In-Ho Jung, Byung-Chul Lim, "Students of factors affecting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entering on students studying Dental Technology Daegu·Gyeongbuk are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3, No. 3, pp. 13-19, 2012.
- [20] Sook-Jeong Lee, Ye Jong Le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3, No. 2, pp. 27-32, 2012.
- [21] Sui Choi, Kyoungcho Choi,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research of the undergraduate orchestra club activities - A convergent aspects of statistical method and

opinion mining",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25-31, 2015.

양 은 목(Yang, Eun Mok)



- 2000년 2월 : 한밭대학교 전자계산학과(학사)
- 2002년 2월 : 공주대학교 전자계산학과(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공주대학교 수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정보보호, 통계, 빅데이터, 교육, 대학입학 등

· E-Mail : emyang@kongju.ac.kr

서 창 호(Seo, Chang Ho)



- 1990년 2월 : 고려대학교 수학과(학사)
- 1996년 8월 : 고려대학교 수학과(박사)
- 1996년 8월 ~ 2000년 2월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팀장
- 2000년 3월 ~ 현재 : 공주대학교 응용수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암호알고리즘, PKI, 무선 인터넷 보안 등

· E-Mail : chseo@kongju.ac.kr

홍 도 원(Hong, Do Won)



- 1994년 2월 : 고려대학교 수학과(학사)
- 2000년 8월 : 고려대학교 수학과(박사)
- 2000년 4월 ~ 2012년 2월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 책임연구원
- 2012년 3월 ~ 현재 : 공주대학교 응용수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암호기술, 프라이버시 보호기술, 정보보호 교육

· E-Mail : dwhong@kongju.ac.kr

김 중 훈(Kim, Jong Hun)



- 2002년 2월 : 공주대학교 전자계산학과(석사)
- 2002년 9월 ~ 2009년 6월 : 한국과학재단연구원
- 2012년 6월 ~ 현재 : 한국과학재단 선임연구원
- 관심분야 : 빅데이터, 교육

· E-Mail : huni@gmail.com